

## EU, "2026 유럽 적정 주택 및 주거단지 건설 전략" 및 "2026~2030 주거 인프라 기술 로드맵" 수립

| 해당국가 | EU | 기관(기업) | 유럽 집행위원회(EC) | 동향분야 | 기술 | 국토교통<br>기술분류 | 건축 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

- 유럽 집행위원회(EC), 주거 위기 극복 및 건설 산업 혁신을 위한 '2026 유럽 적정 주택 및 주거단지 건설 전략' 확정
  - 'European Green Deal'의 주거 부문 이행과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주거단지의 설계·시공·운영 전반을 디지털 및 순환 경제 체계로 전환하는 '2026~2030 주거 인프라 기술 로드맵' 수립
  - '26년부터 EU 신규 대규모 주거단지에 디지털 건물 로그북(DBL) 도입을 권고하고, 조립식 모듈러 건축 표준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주거단지 가이드라인 강화
  - 공급 속도 최적화를 위한 '산업화된 건설 방식 및 모듈러 주거단지' 계획 기술
    - 주택 공급 기간 단축을 위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및 조립식 건설 기술을 주거단지 계획의 핵심 수단으로 채택
    - '26년 초부터 시행되는 EU 차원의 건설 제품 표준화 작업을 통해 다른 제조사 간 모듈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, 대단지 조성 시 반복 설계 및 대량 생산 기술을 적용해 건설비의 20~30% 절감 추진
  - 단지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'디지털 건물 로그북(DBL) 및 통합 데이터' 활용 기술
    - '26년 1분기부터 주거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, 자재 성분, 유지보수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'디지털 건물 로그북' 표준화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착수
    - 단지 기획 단계에서 빌딩정보모델링(BIM)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하여 단지 내 에너지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, 운영 단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후화를 예측하는 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
  -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'자재 재활용 및 에너지 자립형' 커뮤니티 설계 기술
    - '26년 하반기 '순환 경제법' 강화에 따라, 재개발 주거단지 계획 시 기존 건물의 철거 자재를 자산화하여 신축 단지에 재투입하는 도시 광산(Urban Mining) 기반의 설계 기법 적용 확대
    - 시민 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주거단지 내 공동 태양광·ESS를 공유하는 에너지 커뮤니티를 의무화하고, 단지 단위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술적 기반 마련

※ 출처 : European Commission(2025.12.16). Commission takes action for more affordable housing across Europe